

대학생의 내현적자기애가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 성인애착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진이주
경북대학교 아동가족학과

Effects of University Students' Covert Narcissism on Their Interpersonal Relationship Skills: Mediated Effects of Adult Attachment

Jin I Ju
Department of Child & Family,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내현적자기애 성향이 높은 대학생들의 대인관계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해 그들의 핵심 정서인 내적 심리상태 중 부정적 정서인 성인애착을 통한 대인관계능력과의 관계를 검토하고, 내현적자기애와 대인관계 능력의 관계에서 성인애착에 대한 매개효과를 검증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경기 지역의 대학생 447명으로 2020년 7월 6일부터 31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23.0과 AMOS 23.0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신뢰도 분석, t-test, 일원분산분석, Pearson의 상관관계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구조방정식 모형, 부트스트래핑, sobel-test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내현적자기애는 대인관계능력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학생의 내현적자기애는 성인애착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대학생의 성인애착은 대인관계능력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대학생의 내현적자기애와 대인관계능력 간의 관계에서 성인애착은 유의한 매개효과가 있음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들에게 내현적자기애를 변화시키는 노력과 함께 애착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Abstract This study reviewed the interpersonal relationship skill of university students who have the higher tendency of covert narcissism by adult attachment that is negative emotion among internal psychological states and to verify the mediated effect on adult attachmen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overt narcissism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skill so as to relieve their interpersonal problems. The study subjects included 447 university students in Seoul and Gyeonggi Province, and survey research was conducted from July 6 to 31, 2020. Data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SPSS 23.0 and AMOS 23.0. Study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covert narcissism of university students was shown to negatively affect interpersonal relationship skills. Second, covert narcissism of university students was shown to positively affect adult attachment. Third, adult attachment of university students was shown to negatively affect interpersonal relationship skills. Fourth, the significant mediated effect of adult attachment was foun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overt narcissism of university students and their interpersonal relationship skill. The study results imply that it is necessary to assist university students who are not good at developing interpersonal relationships to enhance their attachment level together with efforts to change covert narcissism.

Keywords : University Students, Covert Narcissism, Interpersonal Relationship Skill, Adult Attachment, Mediated Effect

*Corresponding Author : I-Ju Jin(Kyungpook national Univ.)

email: haeyoon@knu.ac.kr

Received October 28, 2020

Accepted January 8, 2021

Revised December 3, 2020

Published January 31, 2021

1. 서론

한국은 유교사상에 뿌리를 두고 발전해온 나라로, 한국 사람들은 '우리'라는 집단주의를 중심으로 관계중심적인 가치를 중시하며 살아왔다[1]. 그러나 최근 한국사회는 지난 수십 년 간 급격하게 산업화되고 서구화되어가고 있으며, 자본주의를 넘어 신자본주의가 정착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자본주의는 개별화와 개인의 독창성을 강조하는 것이 특징이다[2].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서 한국사회에는 서양의 개인주의가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그 속도 또한 매우 빨라지고 있다. 복잡하고 다양한 구조를 가진 현대 사회의 시대적 흐름은, 타인과의 조화를 추구하기보다 개인의 우월함과 개성을 중시하며, 경쟁적 개인주의 사회인 자기애의 사회라고 규정하였다[3]

개인주의 사회의 특성은 자신에 대한 극단적인 과대평가, 자기중심주의, 특권의식 등으로 대표되는 자기애의 성격적 특성이 강하게 나타나고 지나친 자기애는 자기 자신에게만 집착하고, 자신에 대한 웅대한 상을 갖고 있으며, 극단적인 특권의식과 자기중심성을 갖는다[4]. 이런 사람들은 타인에 대해 무관심하고 남들로부터 인정과 존경만을 받으려고 하며 관계에서 착취적인 모습을 보인다. 특히 부적응적으로 발달한 내현적자기애는 이상적인 자기상과 현실의 자기상이 불일치하여 수치심, 분노, 우울, 불안, 적대감 등의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기 쉬워 여러 가지 신체적, 심리적 장애에 취약하여 일상에서의 불편감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5].

Erikson(1963)은 성인초기 단계인 대학생 시기의 주요 심리사회적 발달과업은 타인과 친밀한 대인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라고 하였다[6]. 공식적으로 성인기의 시작인 대학생 시기는 성인으로서의 책임과 규범 역할을 습득해 나가는 과정에 있으며, 제한된 환경에 소속되어 관계를 형성하던 청소년기 시기와는 달리 급격히 확장된 사회관계적 상황에 노출되므로 한층 더 효율적이고 성숙한 대인관계 능력이 요구되는 시기이다[7]. 특히 취업을 위해서 기본적인 학업 이외에도 대외활동, 팀 프로젝트, 인턴 등의 다양한 이력을 쌓아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 요즘의 대학생들에게는 더욱더 대인관계 유능성이 중요한 개인 능력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대인관계의 향상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타인에게 관심을 가지는 노력과 태도가 필요하다. 하지만 청소년 시절 대입 입시문화를 경험한 대학생들은 자기중심성이 강하며, 이러한 사람들의 경우, 자신에게만 몰입하는 경향으로 인해 타인이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라는 사

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타인에게 관심을 잘 갖지 못하므로 대인관계 발휘에 어려움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8]. 타인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공동체로서의 발전을 도모하기 보다는 개개인의 존재에 대한 가치와 존재감을 우선시하는 개인주의적이고 경쟁적인 사회 문화 속에서 자기중심성이 두드러지는 자기애는 현대 사회의 주된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현대 사회에 만연한 풍조인 자기애는 대인관계를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예측 요인이다[9]. 즉, 대인관계에 대한 높은 형성은 결국 대학생활 적응 뿐 아니라 성공적인 성인으로서의 발달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를 향상시켜 적응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자기애적 성향 중 내현적자기애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찾아보면 내현적자기애 성향이 높을수록 자존감이 낮고, 신경증적인 경향이 높으며[10-11], 대인관계 속에서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12]. 이러한 내현적자기애는 대인관계에서 높은 자신의 이상에 대한 좌절과 타인에 평가에 대해 자신의 가치감이 쉽게 동요하며[13], 스스로 마음의 상처를 쉽게 입고, 굴욕감을 남들보다 더 자주 느끼기 때문에 피상적인 관계를 맺게 된다[14]. 결국 사회적 불안이 높아지는 상황에서는 내현적자기애성향을 가진 사람은 회피적으로 행동하게 되어 고독감을 쉽게 느낀다. 이러한 고독감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내현적자기애에 역제시시키고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긍정적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보호변인이 필요한데 이러한 심리적 용을 일으켜주는 요인으로 애착을 볼 수 있다.

Berman과 Sperling(1994)는 성인애착을 영유아기에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위협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부모 또는 주 양육자와의 애착형성이 성인기가 되면서 친구, 선후배 혹은 배우자 등의 양육자가 아닌 사회적 관계의 사람들과 애착을 형성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15]. 성인애착에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애착의 형성이 불안정 할수록 대인관계문제를 경험하는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6]. 이와는 반대로 성인애착의 긍정적 영향은 자신의 행동이나 감정, 생각 등에 평가를 내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따뜻한 마음으로 수용을 하는 자세이다[17]. 그러나 내현적자기애는 내면에 자신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자리하고, 그러한 결핍을 메우기 위해 타인의 인정과 승인을 바라고, 왜곡된 인지 편향으로 인해 부정적 평가에만 주의를 기울여 결과적으로 부정적 심리상태의 우울이나 불안감, 수치심을 느끼고 대인관계문제가 발생한다[18]. 이는 기본적으로 내현적자기

에 성향의 사람들은 성인애착으로 인한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 상태의 심리상태를 느끼고 대인관계에서 역기능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성인기 애착과 유아기 애착의 가장 큰 차이점은 유아기에는 아동의 양육자에 대한 애착 행동과 양육자가 유아에게 제공하는 보살핌이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성인기에는 애착을 추구하는 대상과 애착대상 간에 애착 행동과 보살핌이 상호적으로 이루어진다[19]. 애착대상도 개체의 발달과 함께 부모에서 친구로, 애인과 배우자로 전환해 가며 유아기 애착처럼 성인기 애착도 내적 작동모델, 환경적 상황, 유전적 행동체계, 그리고 부모 또는 양육자와의 현재 관계를 포함한다[20]. 특히, 불안정한 애착유형을 지닌 대학생들은 낮은 환경에 노출됨으로써 더욱 더 대학생활에서의 문제와 심리적인 문제에 취약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내현적자기애 성향이 높은 사람들의 대인관계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들의 핵심 정서인 내적 심리상태 중 부정적 정서인 성인애착을 통한 대인관계능력의 상관관계를 검토하고, 내현적자기애와 대인관계 능력의 관계에서 성인애착에 대한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는 대학생이 겪고 있는 대인관계 문제의 해결할 수 있는 이해의 폭을 넓히고, 각 문제 양상에 따라 개별적인 상담개입 및 교육 자료에 대한 기초 자료에 효과적인 프로그램 방향을 제공해 줄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2.1 내현적자기애

현대사회는 복잡하고 다양한 구조 속에서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 속에서 인간은 자아만족을 위한 강력한 욕구와 타인과 비교하여 뛰어나 보이거나 관심의 대상이 되기 위해 점점 경쟁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사회로 변모되었다[21].

이와 같은 개인주의 사회는 자신에 대한 극단적인 과대평가, 자기중심주의, 특권 의식 등으로 대표되는 자기애의 성격적 특성을 나타내며, 이러한 자기애적 욕구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22], 이런 특성을 지닌 사회를 혹자는 자기애의 사회라고 규정하였다[23]. 지나친 자기애는 자신에 관한 웅대한 환상을 가지며 자신에게만 집착하고 다른 사람에 관해 무관심하며 상대방으로부터 존경과 인정만을 받으려 하므로 인간관계에서 착취적인 모습을 보인다[24].

자기애의 개념은 Narcissus 신화에서 유래된 자기애는 자신을 과장적으로 평가하고 자기 몰두적인 성격 유형을 묘사하는 개념 “On narcissism”에서 Narcissus 신화를 인용하는데서 비롯하였다[25]. 따라서 미국의 문화비평가인 Dombeck은 이러한 사회적 현상은 특별한 병적증상이기보다는 현대사회의 전반에 만연하게 드러난 ‘나르시시즘 성향’이라고 주장하였으며, 자신은 특별하다는 허영심과 자아도취, SNS와 셀카에 빠져 관심 끌기에 매몰된 현상들은 표현화된 나르시시즘의 일종으로 대중적 문화현상의 변화라고 하였다[26].

이처럼 최근 자기애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정신의학회(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APA)는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 편람 제 3판(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for Mental Disorder-III)에 자기애적 성격장애(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를 진단 범주에 포함시켰으며, DSM-IV-TR에서는 자기애적 성격장애에 대해 자신의 중요성과 독특성을 과장되게 지각하고, 자신의 유능함을 과시하며 타인으로부터 인정과 찬사를 요구한다고 개념을 정리하고 있다.

또한 타인의 반응에 민감하고 쉽게 상처 입는 취약성을 보이는가에 따라 외현적자기애(overt narcissism)와 내현적자기애(covert narcissism)로 분류하고 있다. 내현적자기애는 적대감과 분노 등을 억압하는 유형으로 자신에 대한 타인의 반응에 지나치게 민감한 경향이 있으며, 외현적자기애는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하고 자신에 대한 찬사를 요구하며 타인의 비판이나 거절에 대해서는 쉽게 분노하고 상대방을 평가 절하한다[21]. 경험론적인 연구들에 의하면 내현적자기애 성향자들은 자존감이 낮고 자기개념이 부정적이며 우울하여, 외현적자기애보다 더 역기능적이라고 보고하고 있다[27].

이와 같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 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현대사회는 외현적자기애에 비해 내현적자기애가 더 역기능적이라는 증거들이 다양한 선행연구를 통해 밝혀졌으며[28-29], 자기중심성과 정서적 극단성으로 대인관계에 부적응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예측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 사회의 실정을 감안할 때, 내현적자기애에 대한 연구가 요구되고 있음을 인지하여 내현적자기애에 초점을 두어 변인 간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2.2 성인애착

애착은 한 개인이 자신과 가까운 사람에게서 느끼는

강한 정서적 유대로 영아기에 형성된 애착은 전 생애를 거쳐 지속되고, 안전과 생존을 위해서 자신보다 더 강인하고 지혜로운 대상에게 근접하고자 하는 생물학적인 애착행동 시스템을 발달시킨다[30].

Brennan, Clark과 Shaver(1998)은 애착과 관련된 성인기의 타인 표상을 성인애착이라 지칭하였고[31], Ainsworth와 Witting(1969)는 유아기의 애착경험으로 형성된 심리적 특성이 성인이 된 후에도 개인의 성격특성으로 통합될 것으로 보면서 유아기의 애착유형을 성인 애착에 적용하였다[32]. 최근 연구에서도 역시 성인애착 유형이 관계의 목적이나 상대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될 수 있는 것이지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결과가 있었다[33].

Main, Kaplan과 Cassidy(1985)가 정리한 바에 따르면, 성인애착 개념은 성인이 자기 자신에게 신체적,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특정한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근접과 접촉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안정적 경향성을 말한다[34]. 그 대상은 연인, 부모, 배우자 같은 의미 있는 타인이다[35]. 즉, 성인애착은 성인이 특정한 의미 있는 타인에게 다가가는 근접과 접촉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안정적 경향성으로, 다가갈 친밀해지기를 원하지만, 신뢰할 수 있는지를 걱정하는 경향성과 가까이 접근하거나 피하는 행동조절 경향성에 따라 개념화하는 애착 개념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36].

Mikulincer과 Shaver(2003)의 연구에 따르면, 안정 애착의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를 알고 느끼며 타인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지각하여 스트레스에 직면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내적자원을 활용하기도 하고 주변의 지지를 추구한다고 했다[37]. 반면, 불안정 애착의 사람들은 부정적 타인표상이나 부정적 자기표상, 그리고 둘 모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 가까워짐과 멀어짐에 대한 적당한 선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보인다[38].

이러한 불안정애착인 성인애착을 이현주와 안명희(2012)는 애착불안과 애착회피로 구분하여 개념화 하였다[39]. 애착불안은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집착하거나 몰입하려는 경향이 높고, 거부와 버려짐에 대한 공포가 특징이며, 애착회피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지나치게 방어적이고, 공격적이며, 적극적인 태도로 타인과의 거리를 좁히려 하지 않으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애착불안과 애착회피는 성인에게 있어 타인과의 교류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안정 애착된 성인들은 신뢰나 우정과 같은 긍정적 정서에 근거하여 사랑을 경험하는 반면 불안정한 애착집단은 정서적으로 변화가 심하고 질투심이 강하며 상대에게 강박적으로 몰

두하는 방식으로 사랑을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으로[40], 이는 성인초기인 대학생 시기에 더욱 발생소지가 커질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애착불안과 애착회피의 관점에서 성인애착을 살펴보고자 한다.

2.3 대인관계능력

최근 성인 남녀 간에 '관태기'라는 신조어가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관태기는 인간관계에 권태를 느끼는 초기 성인 남녀가 친밀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기 보다는 대인관계를 회피하는 등의 대인관계를 의미한다[41] 실제로 20대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한 인간관계 인식 및 실태조사에 의하면, 성인 남녀 4명 중 1명은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대인관계 유지 및 관리에 피로감과 회의감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42]. 초기 성인기에 진입한 대다수의 대학생은 대인관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최근 20대 초반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많은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초기 성인들의 주요 관심 및 해결과제로 대인관계가 관련이 있음을 보고하였다[43]. Erikson(1959) 역시 성인기의 발달과업은 타인과의 깊이 있고 친밀한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하였다[6]. 대인관계의 중요성이 높은 만큼 최근 대인관계 잘할 수 있는 대인관계능력에 대하여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대인관계란 한 사람이 자신이 속한 환경에서 타인과 사회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것을 의미 한다. 또한 타인을 대하는 개개인의 보편성이고, 심리적 지향성이며, 개인의 내적 성격과 외적 행동 간의 관계를 의미한다[44].

대인관계능력(Interspersonal Competence)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 Thorndike(1920)는 자신과 타인의 내면에 있는 동기, 상태, 행동 등을 인식하여 이것을 근거로 적절하게 행동하는 능력이라고 하였으며 [45], Spitzberg와 Cupach(1989)는 대인관계를 통해 통제력을 얻고 효과적으로 목표를 달성하는 능력이라고 하였다[46]. Buhrmester 외(1988)는 5가지 대인관계 과업 영역에 따라 개인의 대인관계 능력을 측정하였다 [47]. 각 영역은 '처음 관계 맺기', '정서적 지지', '자기 노출', '권리 주장', '갈등 다루기'로 나누어 개념화 하였다. 즉, 대인관계능력이란 '두 사람 또는 그 이상의 사람들 간의 역동적이고 지속적인 상호작용의 복합적인 패턴인 대인관계를 형성 및 유지하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48].

대인관계능력(interpersonal competence)은 높으면 지지적 대인관계를 형성하고[49], 심리적 웰빙이 높아

지는 등[50] 개인의 생활에 긍정적 영향을 주지만 대인관계능력이 낮으면 대학생활의 심각한 부작용으로 초래하고[51], 다른 사람들과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능력이 떨어져 직업적 부작용으로 직결될 수 있는 등의 대인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52]. 이렇듯 대인관계능력이 높다는 것은 개인의 심리, 정서적 안정과 개인의 주관적 행복감, 사회적 성공 등의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5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대인관계능력이 후기 성인기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매우 주요한 요인이라고 보고, 이를 내현적자기애와 성인애착과의 관계규명을 하고자 한다.

2.4 선행연구

본 연구에서는 위의 '내현적자기애'와 '성인애착', '대인관계능력'에 대하여 살펴본 개념을 토대로, 변인 간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고찰하고자 한다.

대인관계는 자기에 성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특히 내현적자기애 성향이 높은 사람일수록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보고되어 왔다[54]. 자신이 무가치하고 불행하다고 느끼며 소심하고 예민한 내현적자기애 성향은 자신은 무력하지만 타인은 강하다고 판단하여 타인에게 의존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비주장성, 자기희생, 과순응성'과 같은 대인관계문제를 내현적자기애와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의 관계에서 야기할 수 있다[55].

이러한 의존적 경향성의 정도가 지나치게 되면 다른 사람들 앞에 잘 나서지 못하고 불안해하며 낮은 사람과의 사회적 접촉을 피하게 되는데[56], 이는 대인관계의 문제 중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불편해하는 '냉담, 사회적 억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내현적자기애도 친밀한 관계에서는 과시적이고 웅대한 환상을 보이기도 하는데[57], 이러한 성향으로 인해 타인을 지배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우월감을 느끼려는 감정을 일으킬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외현적자기애 성향자와는 다르게 내현적자기애 성향자들은 수반적 자존감(contingent self-esteem)을 가지게 되어 표면적으로는 크게 두드러지지 않을 수 있지만 무의식적으로는 강한 열등감이 내재화된 방어적이고 손상된 자존감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58]. 자신이 상정한 기준에 부합되는 수반적 자존감을 사용하게 되면 외부로 귀인하는 소극적 방어와 과대자기욕구 불충족으로 효율적인 대인관계 형성이 어려워지는 것이기에 내현적자기애 성향자들의 불안정한 수반적 자존감은 공감능력 결핍과 더불어 내현적자기애 성향자들의 중요한 심리

적 특성이며 대인관계 유능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다[59].

특히 초기 성인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연구들에서 내현적자기애와 대인관계능력 사이의 관계가 지지되었다. 서요한(2018)의 연구에서는 내현적자기애가 높을수록 대인관계능력에서 친밀감이 부족하며 적대감이 높아 불안정한 대인관계능력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60]. 내현적자기애가 신경질적 경향성, 비우호적이고 회피적인 대인관계능력과 정적인 상관이 있다고 보고되었다. 특히 내현적자기애의 착취/자기중심성, 과민/취약성, 소심/자신감부족과 불안애착은 대인관계문제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61].

이러한 내현적자기애는 성인애착과도 밀접한 관계에 있다. 최근 몇몇 연구에서 성인애착과 자기애 사이의 관계를 주목하였다. Smolewska와 Dion (2005)은 성인애착의 애착불안과 애착회피가 자기애에 미치는 영향을 애착이론에 근거해 설명하였다[62]. 그들에 따르면, 애착불안과 애착회피가 내현적자기애와 관련성이 높고, 특히 내현적자기애에 대한 개인의 점수는 성인기 애착불안을 가늠하는데 예언적 역할을 할 수 있기에, 내현적자기애자들이 애인과의 관계를 비롯한 친밀한 관계에서 보다 높은 수준의 불안을 경험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내현적자기애의 불안하고 화나게 하는 상황들에 대한 낮은 역치는 불안을 이끄는 애착체계의 빈번한 활성화를 일으키고, 이 때문에 애착회피 역시 내현적자기애의 과민성에 대한 전략이 된다고 보았다.

반면에 Otway와 Vignoles(2006)은 성인애착 불안만이 내현적자기애를 직접적으로 예언한다고 보았다[63]. 이와 비슷하게 김은혜(2008) 등의 연구에서는 성인애착과 내현적자기애는 높은 상관을 보이고 있다는 결과를 보이며 성인애착 중 애착불안이 애착회피보다 더 내현적자기애와 관련이 있다고 보았는데[64], 이는 결국 애착관계에서 거절당하는 두려움을 많이 느끼는 사람일수록 내현적자기애 성향이 높다는 것을 나타냈다.

특히 성인애착의 모든 유형에서는 내현적자기애를 통해 폭력까지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65], 성인불안정애착이 얼마나 사회적인 폐해를 끼칠 수 있는지 확인되었기 때문에 다양한 범죄가 많아지고 있는 현재의 실정에서 더욱 주목해야 될 과제라 볼 수 있다. 그러나 내현적자기애와 성인애착의 관계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내현적자기애가 성인애착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 대한 연구는 전무하였다. 그러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성인애착과 내현적자기애 모두 불안정한 심리요인

에서 기인되었다는 공통점이 있으므로 인과관계를 알아 볼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성인애착은 생애 초기에 양육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그리고 점차 다른 유의미한 대인관계를 통해서 형성되고 발전하며, 친밀한 대인관계 상황에서 개인의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반응을 그 개인 특유의 것으로 결정 짓는 역할을 한다. 때문에 내적 작동 모델은 애착대상과의 반복되는 상호작용을 통해 내적 모델이 구성, 강화되면 점차적으로 변화에 저항하게 되며, 결국 평생 동안 무의식적·자동적으로 작동한다[66].

이에 애착불안과 애착회피는 대인관계능력을 저감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손꼽히는 것이다. 불안정 성인애착(애착불안, 애착회피)에 대해 어려움을 겪을수록 타인과 효과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저하되며, 자신이 타인에게 더 부정적으로 인식된다는 것을 스스로 지각하기 때문이다[67].

특히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애착, 정서, 대인관계유능성간의 관계 연구 결과에서는 애착불안과 애착회피가 대인관계능력과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결과가 대부분이다[68]. 송가미와 박희연 회피애착이 높은 사람은 자기와 타인에 대한 부정적 표상을 형성하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걱정이나 불만족으로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야기하며, 불안애착이 높은 사람들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걱정이나 불만족을 통하여 자신의 존재감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여 낮은 대인관계능력을 밝혔다[69].

그러나 정해기(2018)는 성인의 애착불안과 애착회피가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남을 밝혔다[70]. 애착회피는 대인관계능력에 직접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애착불안은 대인관계능력에 직접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애착불안 수준이 높은 성인 내담자 경우 애착불안을 다루기보다 대인관계문제의 원인을 탐색하는 방향으로, 애착회피 수준이 높은 경우 상담관계 유지를 위한 신뢰감 형성과 자신 및 타인에 대한 내면적 표상을 바꾸는 방향으로 개인별 개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경험 연구들을 종합하여 보면 애착경험과 불안정 애착유형은 지속적으로 대인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애착불안과 애착회피 수준이 높을수록 대인관계 수준도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들을 통해 성인애착과 대인관계능력의 관계를 예측해 볼 수 있다. Mikuliner과 Nachshon(1991)의 연구에서 안정애착의 사람들은 회피적 또는 불안/양가적인 애착 사람들보다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타인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보

호받는다 느끼기 때문에 그들에게 자기노출을 쉽게 한다고 보고하였다[71]. 따라서 대인관계능력에 있어 성인애착의 부정적인 영향을 파악하여 안정애착으로 바꾸기 위한 준비가 필요한 것이다.

위의 선행연구를 볼 때, 대인관계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내현적자기애와 성인애착의 유형파악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성인애착은 애착의 유형에 따라 내현적자기애와 대인관계능력에서 타인에 대한 내면적 표상을 바꾸는 것에 대하여 개입될 수 있는 측면이 다를 것으로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내현적자기애 성향자들이 원만한 대인관계의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성인애착의 유형을 파악하여 이에 맞는 실질적인 개인별 개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내현적자기애, 성인애착, 대인관계능력간의 관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실제 개입 장면에서 통합적인 이해와 접근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3. 조사설계 및 연구방법

3.1 연구모형

본 연구는 대학생의 대인관계능력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내현적자기애가 성인애착을 매개하여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의 연구모형과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 H1. 내현적자기애는 대인관계능력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2. 내현적자기애는 성인애착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3. 성인애착은 대인관계능력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4. 내현적자기애와 대인관계능력 관계에서 성인애착은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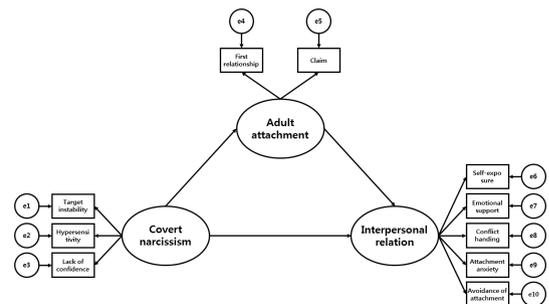


Fig. 1. Research Model

3.2 연구대상 및 절차

2020년 7월 6일부터 31일까지 설문조사에 동의한 서울·경기 지역 대학생 4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내현적자기애, 성인애착, 대인관계능력과 관련된 구조화된 설문지를 자기보고식으로 작성하도록 하였고, 소요시간은 약 15분 정도였다. 배부된 총 450부의 설문지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13부를 제외하고 총 447부의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성별은 남자가 220명(48.1%), 여자 250명(51.9%)로 나타났으며, 여자가 남자에 비해 17명이 많게 나타났다. 학년은 1학년 41.6%(186명), 3학년 119명(26.6%), 2학년 83명(18.6%), 4학년 59명(13.2%)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공으로는 인문계열 339명(75.8%), 사회계열 98명(21.9%), 사범계열 5명 (1.1%), 이학계열 3명(0.7%), 공학계열과 의약간호계열이 각각 1명(0.2%)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인 성별과 학년에 따라 내현적자기애, 성인애착, 대인관계능력의 차이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1). 분석 결과 성별에 대해서는 내현적자기애의 과민/취약성($t=-3.480, p<.01$), 학년에 대해서는 성인애착의 애착불안($F=4.625, p<.01$), 대인관계능력의 자기노출($t=4.238,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Table 1. Difference test according to gender

variable	gender	N	M	SD	t/F	p
Target instability	male	220	2.76	0.766	-0.958	.339
	female	250	2.83	0.827		
Hypersensitivity	male	220	2.54	0.730	-3.480**	.001
	female	250	2.79	0.797		
Lack of confidence	male	220	2.82	0.658	-1.766	.078
	female	250	2.93	0.707		
First relationship	male	220	3.57	0.623	1.075	.283
	female	250	3.50	0.644		
Claim	male	220	3.58	0.609	1.917	.056
	female	250	3.46	0.640		
Self-exposure	male	220	3.55	0.539	0.019	.985
	female	250	3.55	0.557		
Emotional support	male	220	3.77	0.481	-1.836	.067
	female	250	3.85	0.502		
Conflict handling	male	220	3.77	0.523	-1.176	.240
	female	250	3.82	0.482		
Attachment anxiety	male	220	2.46	0.503	-0.587	.557
	female	250	2.49	0.526		
Avoidance of attachment	male	220	2.75	0.484	-1.041	.298
	female	250	2.80	0.526		

*** $p<.001$, ** $p<.01$, * $p<.05$

Table 2. Difference test according to grade

variable	grade	N	M	SD	t/F	p	사후 검증
Target instability	1grade	186	2.97	0.770	1.773	.152	-
	2 nd grade	83	2.77	0.787			
	3 rd year	119	2.81	0.829			
	grade4	59	2.68	0.855			
Hypersensitivity	1grade	186	2.80	0.779	1.262	.287	-
	2 nd grade	83	2.60	0.770			
	3 rd year	119	2.69	0.803			
	grade4	59	2.70	0.784			
Lack of confidence	1grade	186	2.97	0.610	1.061	.365	-
	2 nd grade	83	2.91	0.643			
	3 rd year	119	2.93	0.775			
	grade4	59	2.83	0.669			
First relationship	1grade	186	3.36	0.589	2.285	.078	-
	2 nd grade	83	3.55	0.658			
	3 rd year	119	3.57	0.665			
	grade4	59	3.57	0.542			
Claim	1grade	186	3.34	0.658	2.234	.084	-
	2 nd grade	83	3.55	0.609			
	3 rd year	119	3.54	0.680			
	grade4	59	3.53	0.545			
Self-exposure	1grade	186	3.35	0.531	4.238**	.006	a<b,c,d
	2 nd grade	83	3.53	0.517			
	3 rd year	119	3.57	0.563			
	grade4	59	3.60	0.548			
Emotional support	1grade	186	3.70	0.492	1.734	.159	
	2 nd grade	83	3.77	0.472			
	3 rd year	119	3.83	0.502			
	grade4	59	3.84	0.500			
Conflict handling	1grade	186	3.67	0.454	1.987	.115	
	2 nd grade	83	3.78	0.481			
	3 rd year	119	3.80	0.502			
	grade4	59	3.84	0.539			
Attachment anxiety	1grade	186	2.67	0.541	4.625**	.003	a,b,c<a
	2 nd grade	83	2.46	0.535			
	3 rd year	119	2.43	0.492			
	grade4	59	2.39	0.437			
Avoidance of attachment	1grade	186	2.85	0.513	0.943	.420	-
	2 nd grade	83	2.79	0.503			
	3 rd year	119	2.74	0.534			
	grade4	59	2.73	0.441			

*** $p<.001$, ** $p<.01$, * $p<.05$

3.3 측정도구

3.3.1 내현적자기애

내현적자기애의 측정은 Akhtar와 Thomson[21]가 개발한 척도를 바탕으로 강선희와 정남운[72]이 수정, 개발한 내현적자기애 척도(Covert Narcissism Scale: CNS)를 사용한 한유정(2017)[73]의 측정항목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27문항으로서 모두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커질수록 내현적자기애 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문항의 구성은 목표불안정 9문항, 과민/취약성 10문항, 소심/자신감부족 8문항의 총 27문항이

다. 한유정(2017)[73]의 연구에서 신뢰도 분석 결과 목표 불안정=.91, 과민/취약성=.85, 소심/자신감 부족=.78이며, 전체는 .92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는 목표불안정 .91, 과민/취약성 .88, 소심/자신감 부족 .80이며, 전체 .93으로 나타나 신뢰성은 양호한 것을 확인하였다.

3.3.2 성인애착

성인애착을 측정하기 위해 Brennan 외(1998)[21]가 개발한 성인기 낭만적 애착척도(Multi-item Measure of Adult Romantic Attachment Experiences in Close Relationships: ECR)를 Fraley, Waller와 Brennan (2000)[74]이 개정한 것을 다시 김성현(2004)[75]이 우리말로 번안하여 타당화한 친밀관계 경험검사 개정판(Experience of Close Relationship-Revised: ECR-R)을 사용한 박란희(2015)의 연구도구[76]를 사용하였다.

ECR-R은 '애착불안'과 '애착회피'의 두 가지 독립된 하위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18문항씩 총 36문항이다. '애착불안'은 관계에 지나치게 몰두하거나 혹은 버림받거나 거절당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정도를 측정하며, '애착회피'는 친밀한 관계를 꺼리거나 불편해하는 정도를 측정한다. 박란희(2015)[76]의 연구에서 신뢰도 분석 결과 애착불안=.89, 애착회피=.86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는 애착불안 .87, 애착회피 .80이며, 전체 .84로 나타나 신뢰성은 양호한 것을 확인하였다.

3.3.3 대인관계능력

대인관계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Buhrmester[47]의 개발한 대인관계능력검사(Interpersonal Competence Questionnaire: ICQ)를 김창대와 김수임(1999)이 번안하였고[77], 이를 사용한 박주연(2013)의 도구를 사용하였다[78]. 일반적인 대인관계 상황에서 개인이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의 정도를 기술하고 있는 이 척도는 5가지 하위요인(①처음 관계맺기 ②권리 주장 ③자기노출 ④정서적 지지 ⑤갈등 다루기)으로 이루어져있다. 각 하위요인마다 8문항씩 총 40문항이 5점 Likert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평정되며 총점이 높을수록 대인관계에서 적절하게 기능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Buhrmester 등(1988)의 연구 [47]에서 .77에서 .87,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박주연(2013)의 연구[78]에서 신뢰도 분석 결과 처음관계맺기=.75, 권리주장=.78, 자기노출=.76, 정서적지지=.76, 대

인갈등=.78로 나타났으며, 전체 .84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는 처음관계맺기 .83, 권리주장 .83, 자기노출 .71, 정서적지지 .77, 대인갈등 .75이며, 전체 .90으로 나타나 신뢰성은 양호한 것을 확인하였다.

3.4 자료분석

회수된 설문지는 부호화하여 통계프로그램인 SPSS 23.0과 AMOS 23.0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결측값과 오기 문항을 선별하고,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의 파악을 위해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요인들의 내적 일치도의 검증을 위해 신뢰도 분석(reliabilit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셋째, 측정도구의 타당성 검증을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넷째, 주요 연구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의 확인을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분석(percentage 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매개변수의 효과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을 실시하였다. 여섯째, 확인된 매개효과와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통해 간접효과를 분석하였으며, 보다 정확한 검증을 위해 Sobel-test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상의 모든 통계분석은 95% 신뢰구간($p < .05$)에서 실시하였다.

4. 연구결과

4.1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

본 연구의 측정도구인 내현적자기애, 성인애착, 대인관계능력의 신뢰도와 타당도 분석을 위하여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내현적자기애, 성인애착, 대인관계능력의 개념신뢰도인 CR(composite reliability: CR)과 평균분산추출지수인 AVE(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 신뢰도 값이 각각 기준치인 0.7이상, 0.5이상으로 나타나 모든 측정도구에 대한 내적일관성을 확인하였다<Table 4>. 또한 <Table 3>과 같이 측정도구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살펴보면 연구모형의 변수에 대한 적합도가 모두 권장수준에 부합하였고, <Table 4>과 같이 요인분석 결과 모든 요인부하량(λ)이 0.551에서 0.845로 나타나 각 요인에 대한 수렴타당성을 검증하였다.

Table 3. Model fit of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hi^2(p)$	df	RMR	GFI	NFI	IFI	CFI	RMSEA
111.120 ($p=0.000$)	25	.022	.957	.949	.960**	.960	.086

Table 4.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study model results

Path		S.T β	S.E.	t-value	Conce pt reliabil ity	AVE	Cronba ch's α
Covert narcissism	→ Target instability	.641	Fix	-	.878	.709	.91
	→ Hypersensitivity	.858	.093	13.536*			.88
	→ Lack of confidence	.767	.076	13.342*			.80
전체		Cronbach's α					.93
Adult attachment	→ First relationship	.572	Fix	-	.769	.624	.87
	→ Claim	.553	.096	8.141***			.80
전체		Cronbach's α					.84
Interpersonal relation	→ Self-exposure	.748	Fix	-	.935	.746	.82
	→ Emotional support	.615	.064	12.733*			.83
	→ Conflict handling	.845	.058	16.646*			.71
	→ Attachment anxiety	.679	.049	14.124*			.77
	→ Avoidance of attachment	.551	.051	11.372*			.75
전체		Cronbach's α					.90

*** $p < .001$, ** $p < .01$, * $p < .05$

4.2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에서는 측정변수들 간의 연관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변수 간 공분산 계산을 통해 가장 보편적으로 이용되는 피어슨 상관계수를 활용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5). 이러한 상관계수에서 0.90 이상이면 두 변수가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고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변수의 제거를 심각히 고려해야 하는데, 본 연구에서 활용될 변수에 관한 상관관계행렬에서는 변수간의 상관계수가 절대값 기준으로 .197~.708의 범위이며, 0.90 이상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상관계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지만 0.90보다 작게 나타나 판별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Table 5. Correlation

Covert narcissism			Adult attachment		Interpersonal relation					
	1	2	3	4	5	6	7	8	9	10
1	1									
2	.556**	1								
3	.490**	.701**	1							
4	.359**	.331**	.288**	1						
5	.341**	.612**	.408**	.242**	1					
6	-.387**	-.361**	-.547**	-.463**	-.250**	1				
7	-.299**	-.471**	-.525**	-.353**	-.267**	.437**	1			
8	-.324**	-.315**	-.396**	-.461**	-.197**	.640**	.502**	1		
9	-.342**	-.271**	-.212**	-.398**	-.245**	.471**	.358**	.585**	1	
10	-.271**	-.245**	-.130**	-.395**	-.290**	.371**	.254**	.429**	.708**	1

1=Target instability, 2=Hypersensitivity, 3=Lack of confidence, 4=First relationship, 5=Claim, 6=Self-exposure, 7=Emotional support, 8=Conflict handling, 9=Attachment anxiety, 10=Avoidance of attachment
* $p < .01$, ** $p < .05$

4.3 가설검증

본 연구의 연구모형 검증을 위한 적합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6>과 같으며, χ^2 , GFI, AGFI, RMR, NFI, RMSEA 등의 적합도가 권장수준에 부합하였다.

Table 6. Research Model fit

$\chi^2(p)$	df	GFI	CFI	NFI	IFI	TLI	RMR	RMSEA
210.267 ($p=0.000$)	27	.922	.915	.904	.916	.858	.036	.098

본 연구의 가설검증을 위한 구조모형 경로계수를 알아본 결과<Table 7>, 모든 가설은 지지되었으며, 자세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Table 7. Validation results of the hypothesis

Hypothesis		S.T β	S.E.	C.R.	p	S.M.C
Covert narcissism	→ Interpersonal relation	-.237	.046	-4.426***	.000	.795
Covert narcissism	→ Adult attachment	.518	.060	8.080***	.000	.269
Adult attachment	→ Interpersonal relation	-.745	.060	-11.421***	.000	.795

*** $p < .001$, ** $p < .01$, * $p < .05$

대학생의 내현적자기애는 대인관계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237$, $p < .001$). 대학생의 내현적자기애는 성인애착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eta=.518, p<.001$), 성인애착은 대인관계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745, p<.001$). 또한 내현적자기애와 성인애착은 대인관계능력을 79.5%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내현적자기애는 성인애착을 26.9%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Table 8>은 가설 4인 내현적자기애와 대인관계능력의 관계에서 성인애착에 대한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부트스트래핑 방법으로 연구모형의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총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가설 4는 지지되었다.

내현적자기애와 대인관계능력의 관계에서 성인애착은 직접효과($\beta=-.237, p<.001$), 간접효과($\beta=-.386, p<.001$)와 총효과($\beta=-.623, p<.001$)는 유의수준 $p<.001$ 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성인애착은 간접효과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Table 8. Indirect effect analysis of adult attachment

Independent variable	Parameter	Dependent variable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Total effect	
			Path factor	p	path factor	p	Path factor	p
Covert narcissism	Adult attachment	Interpersonal relation	-.237***	.000	-.386***	.000	-.623***	.000

*** $p<.001$, ** $p<.01$, * $p<.05$

내현적자기애와 대인관계능력의 관계에서 성인애착에 대해 보다 자세한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Baron과 Kenny(1986)가 제시[79]한 Sobel-test를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는 다음 <Table 9>와 같다. 성인애착에 대한 매개효과는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Table 9. Sobel-test result of adult attachment

Independent Variable	parameter	dependent Variable	Sobel-test	
			Z-value	p
Covert narcissism	Adult attachment	Interpersonal relation	-6.794***	.000

5. 결론

본 연구는 내현적자기애 성향이 높은 대학생들의 대인관계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해 그들의 핵심 정서인 내적 심리상태 중 부정적 정서인 성인애착을 통한 대인관계능력과의 관계를 검토하고, 내현적자기애와 대인관계 능력

의 관계에서 성인애착에 대한 매개효과를 검증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 경기 지역의 대학생으로 2020년 7월 6일부터 31일까지 총 4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분석은 총 447부의 데이터가 사용되었고, SPSS 23.0과 AMOS 23.0을 사용하여 가설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성별에 따른 차이 분석 결과 과민취약성에 대해서만 남성보다 여성에서 높은 결과가 나타났으며, 학년에 따른 차이 분석 결과 자기노출과 애착불안에서만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강선모와 임혜경(2012)에서 나타난 과민취약성이 남성보다 여성에서 높다는 결과와 일치하고[81], 남성적 자기애와 여성적 자기애와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성별에 따른 차이를 두어 내현적 자기애를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1학년 보다는 2학년에서 애착불안이 높다는 결과는 이윤주 외(2004)의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와 같으며[82], 이는 학년 초기보다 많은 시간이 경과된 후 보다 사회적 환경과 자신이 처한 환경에 적응된 시간이 많아짐에 따라 불안요소가 증가되어 성인 애착 중 애착불안이 더 높아진 것을 알 수 있으며, 특히 3학년과 4학년에서는 이러한 불안요소가 더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선행연구에서는 그 차이가 없었으나, 자기노출 역시 학년 초기 시기보다 학년 중기와 후기시기에 자기노출이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대학생의 내현적자기애가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내현적자기애는 대인관계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학생의 내현적자기애 수준이 높을수록 대인관계능력은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내현적자기애 성향이 높은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들 앞에 잘 나서지 못하고 불안해하며 낯선 사람과의 사회적 접촉을 피하는 것과 같이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보고한 선행연구의 결과[54-56]와 일맥상통한다. 따라서 내현적자기애 성향이 높은 대학생들의 자존감은 대인관계에서 타인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행복과 성취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자존감을 높이려는 노력이 요구됨을 시사한다.

둘째, 대학생의 내현적자기애가 성인애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내현적자기애는 성인애착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학생의 내현적자기애 수준이 높을수록 성인애착 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내현적자기애와 성인애착이 매우 높은 정적인 상관을 보이고 있다고 보고한 김은혜

(2008)의 결과[64]와 맥을 함께한다. 따라서 내현적자기애 성향이 높은 대학생들은 자신을 과장하여 좋게 보려는 내적 소망이 있지만 이것을 표현하지 못해 심리적인 불편감을 가지고 있어 자신과 가까운 사람에게 정서적으로 강한 애착을 보일 가능성이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함을 시사한다.

셋째, 대학생의 성인애착이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성인애착은 대인관계능력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학생의 성인애착 수준이 높을수록 대인관계능력이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의 애착불안과 애착회피는 자기와 타인에 대한 부정적 표상을 형성하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걱정이나 불만족으로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야기한다고 한 선행연구의 결과[68-69]와 일치한다. 따라서 대학생들은 타인과 친밀감을 유지하기 어려운 애착회피가 높을수록 대인관계능력이 부족하고, 타인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애착불안이 높을수록 대인관계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대학생의 내현적자기애와 대인관계능력의 관계에서 성인애착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면, 내현적자기애와 대인관계능력 간의 관계에서 성인애착은 유의한 매개효과가 있음을 검증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주변 환경의 변화나 개인 내적인 심리적 변화 없이는 영아기부터 성인기까지 애착이 지속되고, 자신의 애착 패턴을 성인기에 바꾸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80]. 따라서 대학생의 내현적자기애와 대인관계능력의 관계에서 애착을 변화시켜서 대인관계능력을 높이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들에게 내현적자기애를 변화시키는 노력과 함께 애착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은 비임상집단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이 결과를 자기애성 성격 장애자들에게 일반화하기 어려움이 있을 것이며, 또한 자료수집 방법이 자기보고식이었다는 점은 응답자들이 방어적 태도나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에서 응답했을 가능성과 불성실한 응답으로 자료가 편향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심층적인 면담이나 실험 연구 방식이 제안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제시된 변인 외에 다른 정서적, 인지적인 특성들이 고려되어 대인관계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내현적자기애의 복잡한 심리메커니즘을 다양하게 검증할 수 있어야 하겠다.

References

- [1] H. L. Lim, Y. S. Lee, "Mediating Effects of Distress Tolerance in Relation to Internalized Shame and Anger Expression Style",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29, No.1 pp.159-178, 2017.
DOI: <https://doi.org/10.23844/kicp.2017.02.29.1.159>
- [2] H. S. Kim,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Future of Traditional Performing Arts", *The Korean Journal of Arts Studies*, Vol.16, pp.5-22, 2017.
- [3] J. M. Choi, N. W. Chung, "The Impacts of Covert Narcissism on Career Indecision: Testing the Mediating Effects of Fear of Negative Evaluation and Self-Concept Clarity",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Vol.21, No.1, pp.47-64, 2016.
DOI: <https://doi.org/10.17315/kihp.2016.21.1.003>
- [4] M. S. Kim, E. J. Joo, "The Influence of Intrinsic Covert Narcissism on Interpersonal Competence of College Students: Mediating Effect of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and Social Support",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Vol.11, No.1, pp.1021-1034, 2020.
- [5] M. S. Lee, D. H. Lee, "The Mediating Effects of Shame and Self-criticism in the Relation between Covert Narcissism and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26, No.4, pp.973-992, 2014.
- [6] E. H. Erikson, *Youth: Change and challenge*. New York: Norton Books, 1963.
- [7] H. S. Jeon, K. P. Hong, "Relationship of user characteristics of SNS and Interpersonal Problems of university students", *Korean Society For Computer Game*, Vol.30, No.1, pp.41-47, 2017.
- [8] B. R. Shin, S. Y. Lee, "The Mediating Effects of School Adjustmen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s' Covert Narcissism and Depressive Symptoms", *Journal of Education & Culture*, Vol.24, No.3, pp.331-347, 2018.
- [9] J. S. Lee, M. H. Hyun, "The effects of fear of negative evaluation, passive coping style and perceived social support on depression of covert narcissism", *Korea Youth Research Association*, Vol.19, No.4, pp.161-181, 2012.
- [10] Y. H. Kim, "The Effects of Anxious Attachment on Social Anxiety in College Students: Mediation Effects of Self-Esteem, Shame and Narcissistic Vulnerability", *The Korean Society of Stress Medicine*, Vol.27, No.2, pp.174-182, 2019.
- [11] T. S. Kim, K. H. Lee, "The Mediating Effect of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in the Relation between Narcissism and Career Decision Level in College Students", *Asian Journal of Education*, Vol.13, No.4, pp.123-141, 2012.
- [12] Y. R. Kim, M. K. Jin, "The Mediating Effects of

- Perfectionism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Covert Narcissism and the Interpersonal Problems of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Child Welfare and Development*, Vol.12, No.3, pp.1-16, 2014.
- [13] B. O. Choi, "The Mediating Effect of Self-Concept Clarit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Narcissistic Vulnerability Trait and Subjective Well-Being",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23, No.7, pp.143-166, 2016.
- [14] J. M. Kim, M. H. Hyun, "The effect of psychological parentification on interpersonal problems : The mediating effect of covert narcissism",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24, No.11, pp.123-139, 2017.
DOI: <https://doi.org/10.21509/KJYS.2017.11.24.11.123>
- [15] M. B. Sperling, W. H. Berman, *Attachment in adults: Clinical and developmental perspectives*. Guilford Press, 1994.
- [16] D. W. Lee, *The Mediating Effect of Difficulties in Emotional Regulation in Relation Between Adult Attachment and Interpersonal Problems among Undergraduates*. Master's Thesis, Myongji University of Korea, 2015.
- [17] J. K. Ahn, M. S. Chang, "The Relationship between Adult Attachment and Conflict Resolution Strategies in Romantic Friends: The Mediating Effects of Empathy",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7, No.3, pp.363-394, 2016.
DOI: <https://doi.org/10.21509/KJYS.2017.11.24.11.123>
- [18] S. K. Kang, S. H. Ko, S. H. Han, "The Mediating Effect of Internalized Shame in the Relationships among Students Social Anxiety, Negative Emotion, Covert Narcissism and Depression", *CNU Journal of Educational Studies*, Vol.32, No.2, pp.1-27, 2011.
- [19] S. I. Shin, "The Relationships of Stress Coping Styles and College Adjustment according to Adult Attachment Style",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22, No.4, pp.1-21, 2015.
- [20] J. S. Lankler, *Adult attachment styles and relationship themes: Is there an empirical link?*. Adelphi University, The Institute of Advanced Psychological Studies, 2005.
- [21] B. R. Thompson, P. R. Green, "Classroom strategies for identifying and helping college students at risk for academic failure", *Journal of College Student*, Vol.36, No.3, pp.398-402, 2002.
- [22] H. k. Park, S. A. Kim, "A meta-analytic review of Koreans' cultural self-orientation: Focusing on collectivism and individualism", *Locality and Globality: Korean Journal of Social Sciences*, Vol.42, pp.5-37, 2018.
DOI: <https://doi.org/10.33071/ssricb.42.3.201812.5>
- [23] M. J. Lee, "Interpersonal relationship patterns of overt and covert narcissism: Through a structural analysis of social behavior",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Annual Conference*, Vol.3, No.1, pp.251-251, 2012.
- [24] S. K. Lee, Paloma Benavides, Y. H. Heo, S. W. Park. "Narcissism increase among college students in Korea: A cross-temporal meta-analysis(1999-2014)",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General*, Vol.33, No.3, pp.609-628, 2014.
- [25] S. Freud, *On narcissism: An introduction*. London: Hogarth Press, 1953.
- [26] K. Dombek, *The selfishness of others: An essay on the fear of narcissism*. New York: FSG Originals, 2016.
- [27] S. Akhtar, A. Thompson, "Overview: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Vol.139, No.1, pp.12-20, 1982.
- [28] N. R. Shin, S. H. Jueng, "A narrative inquiry on career experience of female college students with the covert narcissistic tendency",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Vol.22, No.4, pp.511-532, 2017.
DOI: <https://doi.org/10.18205/kpa.2017.22.4.003>
- [29] S. Hibbard, "Narcissism, shame, masochism, and object relations: An exploratory correlational study", *Psychoanalytic Psychology*, Vol.9, No.4, pp.489-508, 1992.
DOI: <https://doi.org/10.1037/h0079392>
- [30] C. A. Pepping, A. O'Donovan, M. J. Zimmer-Gembeck, M. Hanisch, "Individual differences in attachment and eating pathology: The mediating role of mindfulnes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Vol.75, pp.24-29, 2015.
DOI: <https://doi.org/10.1016/j.paid.2014.10.040>
- [31] K. A. Brennan, C. L. Clark, P. R. Shaver, *Self-report measurement of adult attachment: An integrative overview*. The Guilford Press, 1998.
- [32] M. Ainsworth, B. Witting, B. *Attachment and exploratory behavior of one-year-olds in a strange situation*. In *Determinants of infant behavior (vol.4)*. New York: Barners & Noble Books, 1969.
- [33] M. W. Baldwin, J. P. R. Keelan, B. Fehr, V. Enns, E. Koh-Rangarajoo, "Social-cognitive conceptualization of attachment working models: Availability and accessibility effec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71, No.1, pp.94-109, 1996.
DOI: <https://doi.org/10.1037/0022-3514.71.1.94>
- [34] M. Main, N. Kaplan, N. J. Cassidy, "Security in infancy, childhood, and adulthood: A move to the level of representation",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Vol.50, No.1/2, pp.66-104, 1985.
DOI: <https://doi.org/10.2307/3333827>
- [35] H. K. Lee, Y. M. Jo, "The relation between adult attachment and social anxiety: The mediation effect of basic psychological needs satisfaction and experiential avoidance",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14, No.2, pp.1227-1245, 2013.
DOI: <https://doi.org/10.15703/kic.14.2.201304.1227>
- [36] H. J. Lee, *The mediating effect of internalized sham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dult attachment and abandonment anxiety in undergraduate*. Master's Thesis, Suwon University of Korea, 2020.

- [37] M. Mikulincer, P. R. Shaver, *The attachment behavioral system in adulthood: Activation, psychodynamics, and interpersonal processes*. Elsevier Academic Press.
- [38] M. J. Lee, *The relationship between Preschoolers' attachment representation and self-perception*.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of Korea, 2002.
- [39] H. J. Lee, M. H. Ahn, "Maternal insecure adult attachment and psychological control: Mediating role of mentalization and negative emotion", *The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Vol.17, No.3, pp.413-434, 2012.
DOI: <https://doi.org/10.18205/kpa.2012.17.3.006>
- [40] G. S. Lee, N. W. Jung, "Differences between emotional control patterns and effectiveness according to adult attachment type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15, No.4, pp.779-793, 2003.
- [41] T. G. Yun, J. M. Lee, "The effect of parent-young adult relationship and self-differentiation on interpersonal problems among 20s", *Journal of Family Relations*, Vol.21, No.4, pp.75-98, 2017.
DOI: <https://doi.org/10.21321/jfr.21.4.75>
- [42] J. S. Lee, H. J. Chung, "The relationships of parent-child relationship and self-differentiation with interpersonal competence amo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Family Relations*, Vol.21, No.1, pp.99-121, 2016.
DOI: <https://doi.org/10.21321/jfr.21.1.99>
- [43] S. Y. Lim, Y. J. Lim, "Covert narcissism and SNS addiction in university students: The mediating effect of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Human Understanding*, Vol.38, No.2, pp.131-145, 2017.
- [44] E. H. Park, *Mediation effects of self-esteem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in the relations between adult attachment and adaptation to college*. Doctoral Thesis, Kyungil University of Korea, 2014.
- [45] E. L. Thorndike, "A constant error in psychological rating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Vol.4, No.1, pp.25-29, 1920.
DOI: <https://doi.org/10.1037/h0071663>
- [46] B. H. Spitzberg, W. R. Cupach, *Interpersonal skills*. The Sage handbook of interpersonal communication, 2011.
- [47] D. Buhrmester, W. Furman, M. T. Wittenberg, H. T. Reis, "Five domains of interpersonal competence in peer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55, No.6, pp.991-1008, 1988.
DOI: <https://doi.org/10.1037/0022-3514.55.6.991>
- [48] H. D. Lee, S. C. Han, *Human understanding and education*. Seoul: JoongAng Publishing House.
- [49] M. S. Lee, G. M. Chae, "The mediating effects of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ies", *Cognitive Behavior Therapy in Korea*, Vol.12, No.1, pp.63-75, 2012.
- [50] K. H. Suh, S. Son, "Relationships between gratitude disposition and psychological well-being: Focus on the mediating effects of interpersonal competence",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Vol.19, No.2, pp.619-639, 2014.
DOI: <https://doi.org/10.17315/kihp.2014.19.2.010>
- [51] S. J. Lee, "The effect of sense of social connectedness and autonomy on college adjustment and subjective well-being among university students: Testing a mediation effect of interpersonal problems", *The Korea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Vol.6, No.2, pp.229-248, 2009.
DOI: <https://doi.org/10.16983/kjisp.2009.6.2.229>
- [52] C. b. Lee, H. s. Jeon, "The effect of family differentiation on interpersonal competence of college students: Mediating effect of self-concept",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16, No.6, pp.465-483, 2015.
DOI: <https://doi.org/10.15703/kic.16.6.201512.465>
- [53] H. I. Jo, M. J. Bae, "The relationship between covert narcissism, self-esteem, cognitive/affective empathy and interpersonal competence",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15, No.6, pp.2417-2435, 2014.
DOI: <https://doi.org/10.15703/kic.15.6.201412.2417>
- [54] K. A. Weikel, R. M. Avara, C. A. Hanson, H. Kater, "College adjustment difficulties and the overt and covert forms of narcissism", *Journal of College Counseling*, Vol.13, No.2, pp.100-110, 2010.
DOI: <https://doi.org/10.1002/j.2161-1882.2010.tb00052.x>
- [55] M. C. Wells, M. B. Hill, M. B. G. Brack, C. J. Brack, E. E. Firestone, E. E, "Codependency's relationship to defining characteristics i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llege Student Psychotherapy*, Vol.20, No.4, pp.71-84, 2006.
- [56] H. Y. Na, T. S. Shin, "The relationship between covert narcissism and social interaction anxiety: The mediating effects of internalized shame and the gap between self-presentation motivation and expectancy",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28 No.3 pp.695-717, 2016.
- [57] M. J. Lee, J. B. Jung, "The analysis of interpersonal behavior pattern for undergraduate with cover and overt narcissistic tendencies: A structural analysis of social behavior",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Vol.3, No.1, pp.119-146, 2017.
- [58] R. A. Emmons, "Narcissism: Theory and measure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52, No.1, pp.11-17, 1987.
- [59] V. Zeigler-Hill, C. B. Clark, J. D. Pickard, "Narcissistic subtypes and contingent self-esteem: Do all narcissists base their self-esteem on the same domains?", *Journal of Personality*, Vol.76, No.4, pp. 753-774, 2008.
DOI: <https://doi.org/10.1111/j.1467-6494.2008.00503.x>
- [60] Y. H. Seo, "The causal relationship among academic resilience, covert narcissism, interpersonal competence and self-efficacy of nursing students", *The Korean Society of Applied Science and Technology*, Vol.35, No.4, pp.1156-1174, 2018.
- [61] S. W. Jung, *The effects of covert narcissism and social*

- self-efficacy, adult attachment on interpersonal problems in university students.* Master's Thesis, Dongguk University of Korea, 2018.
- [62] K. Smolewska, K. Dion, "Narcissism and adult attachment: A multivariate approach", *Self and Identity*, Vol.4, No.1, pp.59-68, 2005.
DOI: <https://doi.org/10.1080/13576500444000218>
- [63] L. J. Otway, V. L. Vignoles, "Narcissism and childhood recollections: A quantitative test of psychoanalytic prediction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Vol.32, No.1, pp.104-116, 2006.
DOI: <https://doi.org/10.1177/0146167205279907>
- [64] E. H. Kim, *The mediational effect of vulnerability and covert narcissism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dult attachment and social anxiety.* Master's Thesi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of Korea, 2008.
- [65] J. H. Park, *The relationship between adult attachment and dating violence: The mediating effects of covert narcissism and rejection sensitivity.* Master's Thesis,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2018.
- [66] J. Bowlby, *A secure base.* New York: Basic Books, 1988.
- [67] H. M. Oh, *The effect of teachers' perceived unstable adult attachment on interpersonal ability: Mediating effect of mattering.* Master's Thesis, Kangwon National University of Korea, 2020.
- [68] J. W. Shin, H. J. Bang, "Attachment and interpersonal competence: The relative effect of attachment avoidance and attachment anxiety",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No.1, pp.278-279, 2006.
- [69] K. M. Song, H. H. Park, "The intermediation effect of interpersonal existe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dult attachment and interpersonal ability of office workers", *The Korean Journal of the Human Development*, Vol.23, No.3, pp. 113-131, 2016.
DOI: <https://doi.org/10.15284/kjhd.2016.23.3.113>
- [69] K. M. Song, H. H. Park, "The intermediation effect of interpersonal existe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dult attachment and interpersonal ability of office workers", *The Korean Journal of the Human Development*, Vol.23, No.3, pp. 113-131, 2016.
DOI: <https://doi.org/10.15284/kjhd.2016.23.3.113>
- [71] M. Mikulincer, O. Nachshon, "Attachment styles and patterns of self-disclosu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61, No.2, pp.321-331, 1991.
DOI: <https://doi.org/10.1037/0022-3514.61.2.321>
- [72] S. H. Gang, N. W. Chung, "A study on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covert narcissism scale",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14, No.4, pp.969-990, 2002.
- [73] Y. J. Han, *The mediating effects of irrational belief and cognitive empath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vert narcissism and interpersonal competence of university students.* Doctoral Thesis, Gachon University of Korea, 2017.
- [74] R. C. Fraley, N. G. Waller, K. A. Brennan, "An item response theory analysis of self-report measures of adult attach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78, No.2, pp.350-365, 2000.
- [75] S. H. Kim, *A study on the feasibility of the revision of the intimacy test: Focused on the proof factor analysis and question reaction theory.*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Korea, 2004.
- [76] R. H. Park, *The effect of adult attachment and self-elasticity levels of Korean university students and Chinese students in Korea on the response behavior of conflict between people.* Doctoral Thesis, Kyunghee University of Korea, 2015.
- [77] C. D. Kim, S. I. Kim, "A study on the effect of group consultation program on the improvement of interpersonal ability", *Seoul National University Student Life Research Institute, Student Research*, Vol.35, No.1, pp.83-95, 1999.
- [78] J. Y. Park, *A study on the effect of college students' self-directed learning, creativity, personal relationship in regards to career decision making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Doctoral Thesis, Kwandong University of Korea, 2013.
- [79] R. M. Baron, D. A. Kenny,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51, No.6, pp.1173-1182, 1986.
DOI: <https://doi.org/10.1037/0022-3514.51.6.1173>
- [80] J. Bowlby, *Attachment and loss: Loss, sadness and depression.* New York: Basic books, 1980.
- [81] S. M. Kang, H. K. Lim, "The Impact of Overprotection and Parentification on Covert Narcissism of University Stud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19, No.4, pp.53-78, 2012.
- [82] Y. J. Lee, H. Y. Min, Y. M. Lee, "The relationships between ego-resilience, adult attachment types, and college adjustment", *Asian Journal of Education*, Vol.5, No.4, pp.125-144, 2004.

진 이 주(Jin I Ju)

[정회원]



- 2020년 3월 : 경북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박사 수료
- 2020년 9월 ~ 현재 : 경북대학교 아동학부 시간강사

<관심분야>
대학생 및 교사의 정신건강